



주 제:	“ 내가 사랑한 것처럼 ”	“부활 제 6 주일”	2009년 5월 17일
복음 묵상:	[요한 15,9-17]	[사도 10,25-26.34-35.44-48]	[1 요한 4,7-10]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당신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통하여 당신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세상이 당신을 알아보기 전에 이미 사랑하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누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야 할 것이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아직 벗이 되지도 않은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분이 아니신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당신을 알기 전에, 즉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즉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당신을 바치셨다. 즉 우리가 먼저 하느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택함을 받았고 불림을 받은 것이다. 이 열쇠는 서로 사랑하여라는 계명을 실천하면서 가능하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의 선택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 이 선택은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을 바라지만, 크나큰 책임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뜻에 올바른 응답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닮고, 진정 그분의 벗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벗으로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협력자로 불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 해 주셨고 이제 그들을 벗으로서의 협조를 바라시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파견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써 가져다주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모든 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전함으로써 모든 이가 썩지 않는 영원한 삶의 결실을 풍성히 누리도록 선포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사랑 안에 남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자.

(조옥현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최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결혼 40 주년기념으로 5/16-5/29 까지 여정으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떠나십니다. 축하드리며 즐거운 여행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지만토마스님과 모니카 조카 결혼식 관례로 금주 LA 에 갑니다. 여행길 주님의 보호를 청해...
- 안호삼 프란치스코 형제님과 세실리아 자매님 5/23(토) 모친 권도남 모니카 자매님께서 넘어져 다리 수술을 받아 2 주일 여정으로 한국을 가게되었습니다. 여행중에 안전하게 함께 하실 것과 모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고, 아울러 여행길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계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숙 리따자매님 6월 초에 돌아오신다는 연락과 함께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안부를 전해오셨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와 기도 요청
 고 조영련 모니카님(조영총 어거스틴 형제님 모친)의 장례 절차에 협조해 주신 성가대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촛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주님의 자비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벼가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나 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1분 명상

♡ 사랑하며 사는 세상 ♡

- 좋은 생각 중에서 -

나는 당신이 되고
 당신은 그대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면 참 좋겠습니다.

숨기고 덮어야 하는
 부끄러움 하나 없는
 그런 많은 세상 사람과
 사람사이달린 문 없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마음의 문을 달더라도
 넝쿨 장이 휘돌아 올라가는
 꽃 문을 만들어서 누구나 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귀한 사랑 받고 살아야 하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주고 도란거리며
 사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못 가졌다고
 주눅 들지 않는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열면 하늘 열리고
 내 마음 열면 그대 마음
 닿아함께 행복해지는 따스한
 촛불 같은 사랑하고 싶습니다.



생활의 지혜

● **커피 홍차 사이다 주스 얼룩**

커피와 홍차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탄산수를 거즈에 묻혀 두드리고, 사이다와 주스는 얼룩이 진 즉시 묽은 소금물에 거즈를 적셔 두드린다.

● **손에 묻은 기름 얼룩은 설탕으로 없앤다**

난방기구를 손질할 때는 손에 기름이 묻기 쉽다. 기름얼룩은 비누로 씻어도 잘 없어지지 않는데 이럴 경우 설탕을 약간 묻혀 손에 비비면 감쪽같이 때가 빠진다. 또한 기름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을 때는 밀감 껍질이나 차잎으로 문지르면 냄새가 쉽게 빠진다

오늘의 말씀 사탕: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전하여 냅니다(1 코린 13.7).”